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상임이사

우리말은 바르게 사용하며 잘 지켜야 한다. 말은 그 사회와 국가의 수준과 성숙도, 그리고 가치 기준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주역이었던 이극로 박사는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역설했다. 세종대왕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기법인 한글을 창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말은 이런 탄탄한 생명을 바탕으로 힘써 지켜야 할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는 그 정신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잘못 쓰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에 대한 유감(有感)

이는 외래어와 함부로 사용되는 외국어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고유어와 함께 한자어가 주로 쓰이고 있으나, 외래어와 귀화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고추(苦草, 고초), 김치(沈菜, 침채), 성냥(石硫黃, 석류황), 수저(匙箸, 시저) 등은 한자어에서 비롯하여 고유어처럼 쓰이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아파트, 버스, 컴퓨터, 피아노, 타이어, 빵 같은 친숙한 외래어가 있는가 하면, 담배, 가방, 냄비, 구두, 고구마, 가마니, 붓, 장마 등의 단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말로 굳어진 귀화어가 있다. 이런 말들은 잘못 쓰일 염려가 거의 없다. 외래어의 오용은 외국어와의 구분이 애매한 말에서 주로 일어난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명확한 구분은 국립국어원이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여부라고 한다. 이 사전을 참고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센터, 비닐, 벤치, 워크숍, 네트워크, 커뮤니티, 케이크 등이 외래어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밀크셰이크, 비어홀, 닥터스톱, 캠핑카 등은 외래어인 반면, 하우스(house), 밀크(milk), 비어(beer), 닥터(doctor), 카(car) 등은 아직도 외국어로 보고 있다. 외래어는 무척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센터나 센터, 비니루, 벤취, 워크숍이나 워크샵,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케익, 밀크셰이크, 비아홀, 닥터스탑 등으로 써선 안된다. 외국어의 남용은 우리말을 약화시킨다. 국어국문학자자료사전은 외국어 사용에 대해, "지식을 과시하려 하거나 상업적 견지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수가 많은데, 이게 외국어 의식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역이나 국제거래 상 필요

하다면 외국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국어는 그 대상 국가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다. 우리말에 대체어가 있음에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사대주의로 우리말을 열등하게 만든다. 외래어의 오용을 줄이고 외국어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말 보호의 기본이다. 문물의 교류를 통해 외국어와 외래어가 유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말에도 있는 표현을 외국어로 대신하여 즐겨 자주 사용하면으로써 외래어의 지위를 갖게 하거나 우리말이 된 외래어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 보호에 역행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사설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제주관광

외화내빈(外華內賓)이 따로 없습시다. 제주관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겉모습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난해 제주관광 조수입 현황을 보면 그대로 비춰줍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과 카지노업종만 크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지역 상권과 밀접한 숙박업과 음식점은 오히려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주관광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관광 조수입을 6조539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5조7000억원)보다 14.7%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제주관광시장이 내국인 대상이나, 외국인 대상이냐에 따라 희비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도내 면세점의 전체 매출은 1조6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습니다. 카지노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85.5% 증가한 51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숙박업과 음식점의 수입은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숙박업은 전년보다 230억원, 음식점은 260억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운수업 매출도 21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2% (43만3503명) 줄어든 탓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관광은 외형만 커졌을 뿐 실속은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관광이 크게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제주관광의 조수입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 대상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과 카지노가 제주관광의 과실을 사실상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에 골고루 배분되는 제주관광의 낙수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주관광이 지금처럼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중해야 할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영역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고도제한 완화와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영역은 2017년에도 추진된바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밀어붙인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과 맞물려 건축고도 완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 끝에 중단됐습니다. 이어 2019년 중앙대공원을 이후 지난해 12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자 재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시는 지난 5월 용역을 발주 주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민복지타운내 일부 미건축 토지주들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총수를 3층에서 4층으로 하거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조경면적 완화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세대와 원룸을 비롯 고층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건축행위를 완료한 토지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현행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건축 토지주와 거주자 및 건축을 한 토지주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2001년 중앙대공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친환경 저밀도형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행복주택 건설과 선부른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술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주민 갈등과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열린마당

조생종 사과를 보며 극조생 감귤을 생각한다



홍순영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야생대연구과

대한민국 대표 과일 중 하나가 사과다. 우리가 아는 사과는 10월 하순 이후 수확하는 만생종이다. 그러나 '홍로'라는 조생종 사과가 출현하면서 이른 추석에도 붉은 햇사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홍로' 품종은 조기수확은 가능하나 모양과 맛이 떨어지고 저장성이 낮다. 무엇보다도 10월 하순이던 맛 좋고 저장성 높은 만생종 사과를 수확해야하는데 저장고에 쌓여있어 걱정이란다. 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52만8000t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할 것이라 한다. 열매크기도 지난해보다 2.2mm 크다고 한다. 감귤은 작아야 맛있다는 소비자 인식이

깊게 박혀 있어 걱정이 앞선다. 노지 극조생 감귤 수확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8, 9월 태풍과 잦은 비 등으로 당도가 낮다. 이대로 간단타면 올해 노지 감귤은 맛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 생각된다. 감귤은 맛이 없으면 소비자는 외면한다. 지금부터 노지감귤 당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도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희망은 있다. 우선 품질 낮은 감귤은 적과해야 한다. 지금시기부터는 적과를 해도 남은 과실이 더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극소과, 대과, 병해충과 등 상품성 낮은 열매는 과감히 적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확기를 조금 늦춰 감귤 과피 착색비율이 극조생 품종은 70% 이상, 조생종 품종은 85% 이상일 때 수확해야 한다. 수확 전 PLS에 허용되는 저장병해 예방과 수확직후 충분한 예조 후 저장, 출하해야 할 것이다. 벌써 미숙감귤을 출하하려고 수확했다가 단속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씁쓸함을 느낀다. 감귤 100년 역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뉴스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길 소망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안전사고 발생시 공제보험 활용 하세요"

도민안전공제 문의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정착을 예고. 이 보험은 총 14종의 보장 항목에 대해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데, 5건의 보험금 지급 확정과 더불어 7일까지 농기계사고 9건 등 21건의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발히 하겠다"고 언급. 조상윤기자

별 홍보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 멘트로 제공하는 전화콜러링시스템을 운영해 134건을 홍보.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은 "민원인과의 통화시 상호중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화녹취시스템도 현재 41개 부서 486명이 사용한다"며 "시민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컬러링으로 시정 홍보

○...제주시가 인터넷전화 부가 서비스를 활용해 행정 업무편의 향상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홍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 시는 올해 민원인 및 직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 전화연결을 대신해 부서

어르신 대상 '땀다방' 단속

○...서귀포시가 7일부터 11일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과 의약품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하는 신종 홍보판(속칭 '땀다방')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점검은 시가 운영하는 시니어갑시원을 활용해 홍보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에 고발할 방침.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식품과 의약품기기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래정씨 지열(향년 7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9일 아 들 김창업 며느리 김금옥 장욱 박정옥 현탁 정근실 딸 김효자 사 위 김주영 효심 안현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찬영(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9일 아 들 고성운 장운 며느리 김효정 딸 고금자 복자 문자 사 위 이우철 미숙 고선화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이름짓는집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석사, 철학박사, 역학상담사, 작명사 1급 용산철학관 서귀포시 신협앞 송림타운 옆집 박용산 010-4464-323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연주현씨 연옥(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9일 아 들 고태하 며느리 강숙자 태극 양인숙 태신 김정화 딸 고경선 사 위 김인현 경숙 황한성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010-5110-5660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로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